



요즈음 업계 사정이 어떻습니까

—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를 중심으로 —

양돈이 주도한 축산업계의 불경기는 아직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불경기는 양돈 양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불황이 왔으며 같은 양계업에서도 부로 밀려와 채란업이 함께오는 경우가 극히 적었다.

더욱이 사료업계나 동물약품업계는 양축업계의 불경기에는 비교적 둔감한 편이었다.

그러나 79년부터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축산물 수요증가는 급격히 감퇴하였고 축산업 전종목에 불황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80년도에 와서 양계, 양돈 경기가 회복되는 듯 하더니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사료와 동물약품업계는 어떤지 협회측을 통하여 알아본다.

김화산 :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설과다와 수요의 급격한 감퇴는 어쩔 수 없이 사료업계를 치열한 경쟁속에 출혈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8시간 가동기준으로 270만톤의 생산능력이 있는데 16시간 가동하면 550



사 료 업 계

(김화산 사료협회 상근부회장)

기자 : 최근 사료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김 화 산
(한국사료협회 상근부회장)

배합사료 생산실적

구분 년도	양 계 용				양 돈	낙 농	비육우	기 타	합 계
	育 鷄	産 卵	肉 鷄	소 계					
1970	73,630	316,437	69,631	459,698	9,917	16,012	3,321	18,816	507,504
1971	86,963	427,285	98,905	613,153	19,919	33,186	7,184	28,668	702,110
1972	96,422	434,202	115,704	646,328	48,317	52,980	6,194	22,417	776,236
1973	111,751	448,843	124,736	685,330	121,822	82,544	5,412	14,512	909,620
1974	92,194	382,243	79,996	554,433	188,828	122,409	45,347	16,153	927,170
1975	104,202	371,370	92,994	568,566	135,505	150,671	33,495	12,758	900,995
1976	173,314	546,354	148,150	867,818	207,074	173,004	43,549	90,081	1,381,526
1977	219,089	697,274	240,561	1,154,924	350,236	265,707	95,528	32,295	1,895,690
1978	304,753	882,076	451,725	1,638,554	498,110	320,728	233,088	2,625	2,693,105
1979	330,230	1,141,449	571,890	2,043,569	1,129,895	438,512	266,206	2,053	3,880,235

만t 을 생산할수 있는데 350만톤 수요에 의형으로는 270만톤이 적은것 같지만 실 제로는 시설 과다가 됩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10년간 배 합 사료의 수요는 폭발적 이었으며 무려 거 의 8 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수 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 계 획이 이루어졌었는데 금년같이 급격 히 수요가 감퇴함으로써 어렵게 되었습 니다.

이러한 수요감퇴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 던 것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현시 점에서 축산업제를 재검토 해야 될 것입니다.

기자: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가시게 된 경위와 그쪽 형편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화산: 이번에 나가보고 더 절실히 느꼈 는데 우리나라 축산분야의 더욱 많은 인사가 외국에 나가 전문을 넓히는 것이 우리나라 축산 발전의 지름길인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외 여행이 초청자 의 경비부담으로 그쪽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오는 수동적 자세에서 이번 시찰단은 처음으로 자비로 산업시찰을 우리가 보고

싶은데를 성공리에 보고온데 큰 뜻이 있습 니다. 앞으로도 해외 여행을 하는데는 그 나라의 정책부터 그 발전과정의 배경까지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뉴오리언스의 곡물수송시설, 미 농무성 미국사료곡물협회 시카고의 무역센터 NRA 사료 향미료 회사 세인트루이스의 미국대두 협회 퓨리나 연구농장 일반축산농가 사료 공장과 캔사스의 협동농장 EMC 사료공장 건설회사 등을 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CCC 중장기 차관의 이용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미 혈맹국으로서 민간 외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한마디로 느낀 인상은 미국은 대국으로써 오일쇼크등 제반 여건 속에서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많은것을 보고 오셨는데 끝으로 현재의 사료업계의 어려움을 해결 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도 구상하고 계신 지요 ?

김화산: 우선 제일 중요한것은 건실한 축산 업의 발전없이 는 사료공업도 발전할 수없읍 니다. 하루빨리 축산업제가 건전하게 발전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축산업계의 경기회복은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 집니다. 사료공장의 시설증대도 융통성 있게 해나가야 될것입니다.

경기가 좋을때 조심하고 나쁠때는 참고 견디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을 포함한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으로 기업의 합리화 운영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불경기의 기간이 길면 좋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가 단결하여 슬기롭게 인내를 갖고 용기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될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슬기롭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지난 1월 22일 배합사료 가격이 약30%인상 되었는데 최근 사료협회에서 회원사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63%)이 인상율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사료가격을 더인상 해야하는지? 또는 현재인상분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외상 거래등 경쟁이 치열한데 이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김화산: 하나의 산업이 발전과정에서 여러가지 진통이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기 앞서 전체

설문서취합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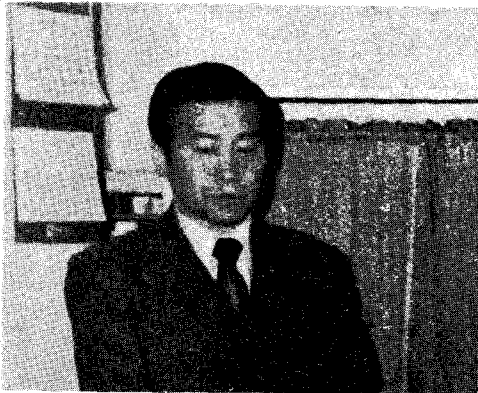
내용	구분	문 제 란	응 답 란	비 고
배합사료 가격 정책은?		80. 1. 22일자 인상율은?	① 적정하다 (12) () ② 과도하다(5) (5) ③ 미흡하다 (29)	
		80. 1. 29일자 유류 및 전기료의 인상으로인한 추가 인상요인	(4.1%)	
		현행 최고판매 가격 제도는	① 존속하여야 한다 (24) ② 자유화하여야 한다 (22)	
도입옥수수 안정기준 가격제도는?		안정 기준 가격 제도	① 존속하여야 한다 (34) ② 폐지하여야 한다 (13)	
		지정금액의 화폐단위	① 원화로하여야 한다 (33) ② \$화로 하여야 한다 (13)	
시설근대화는?		적정 생산 능력은?	① 100M / T 이상 (14) ② 200 " (29) ③ 300 " (1) ④ 기 타 (2)	
		시한 (1982년)은?	① 현 행 (12) ② 연 장 (12) ③ 임 의 (20)	
곡류의 도입 기관은?		도 입 기 관	① 축산진흥회 (19) ② 사 협 (17) ③ 농 협 (1) ④ 무역업체 (0) ⑤ 실수요자 (6) ⑥ 기 타 (2)	

적인 흐름과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장시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축산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사료업계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약품업계

이희구 (동물약품협회 전무)



기자: 이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양축업자들이 알기로는 지난 3월 1일부터 동물약품 가격이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구: 현재 동물약품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환율인상에 따른 불가피한것만 인상하였으며 그 후 부자재등 인상요인이 40~50%되는테 평균 20~25%를 3월 1일부터인상키로 결정했으나 이것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월달에 가격인상설로 약간의 가수요가 있었으며 3월에는 79년에 비해 59%밖에 판매되지 않았는데 30%정도의 가격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물량으로는 30%정도 밖에

판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자: 판매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면 메이커들이 자금압박을 받을텐데요?

이희구: 외형이 감소하니 이익도 축소되고 또 수금도 잘되지 않아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이렇게 되니 일반 양축가가 품질을 의심하실지 모르나 국가에서 철저히 검정을 하니 품질은 안심해도 좋을줄 압니다.

현재 구주로 부터 원료를 수입할 경우 4~6개월 동남아는 3~2개월만에 원료가 도착하고 유통과정을 6개월로 보고 어음으로 수금할 경우 자금 회전이 10~12개월로 년 3회전 시켜야 정상인데 1회전으로 되니 자금압박이 극심한 형편입니다.

기자: 동물약품공장의 시설근대화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희구: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도 자가공장의 시설근대화는 어쩔수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휴폐업 업소는 없으나 고전들하고 있습니다. 예로 79년 월 100만\$씩 수입하던 원료수입이 현재는 동물약품원료의 국제가격이 인상되었는데도 70만\$로 물량면에서는 40%정도가 감소 하고 있습니다.

동물약품업계의 연간 총외형액이 작년 에 197억원이며 이중 원료약품 약 40억원을 빼면 (TM 등 원료판매는 제품으로 제조되어 다시 판매되어 2중으로 계산된다) 150억 정도로 1개 사료공장 외형 액에도 못미칩니다.

박카스 1개 품목의 외형액 210 억에도 못미치는 150억원을 34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러한 모든 불경기가 우리나라 축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축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지요?

이희구 : 앞으로 하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 만연하기 쉽습니다.

이런때 양축가들께서는 더욱 방역에 힘써 주시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사료가격이 오르고 생산비가 비싸지고 사료가격은 정부에서 인정하여준 것도 다 못하고 있는데 이런때일수록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출하일령을 앞당겨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품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보다 방역위생바투자가 적어 전체 경영비의 5~6%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약값을 잘못 아낄경

우 더욱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자 : 이번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물약품회관을 장만하셨다고 들었는데 우선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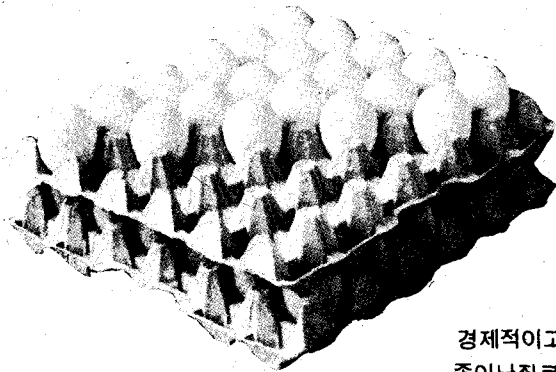
이희구 : 회원들의 찬조와 약간의 그간 적립금 및 전용금으로 장만 했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무악동 21-2블럭의 2층 건물 30평으로 독립문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4월 말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가 바랍니다.

기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계장 · 부화장의 방역은

종이난좌에 맡겨 주십시오!!



종이난좌를 사용하시면

- 무서운 질병의 전파를 막습니다.
- 파란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종이난좌로 방역관리는 안심!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동우체국77번